

LUXURY

MAY 2015

PIAGET

2015 Luxury Timepiece

특별한날을위한선물 28

Summer Makeup

단색화가11인의 '텅 빈 충만'



물감으로 그린 詩, 단색화의 힘

‘텅 빈 충만’.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스타 큐레이터인 정준모 선생이 단색화에 붙인 수사다. 덜어내고, 지워냈는데 오히려 더 짙 찬 충일을 주는 그림.

이 독특한 회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조명될 계획이다.

단색화의 정의부터 인기를 끄는 요인, 새로운 시대의 작가들과 대표적 ‘거목’까지 단색화의 핵심을 짚어본다.

‘한 가지 색이나 같은 계통의 색조를 사용하거나 같은 계통의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만 변화를 주어 그린 그림’. 단색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다.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단색화의 상징처럼 돼 있어 흑색과 백색 같은 모노톤의 그림을 떠올리는 이가 많은데 박서보 작가의 작품처럼 옐로, 그린, 퍼플, 레드 등 강렬한 색상을 사용한 그림도 단색화에 포함된다. 선이나 형태, 주제 등 일체의 구상성을 모두 배제하고 추상이 주는 깊이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 스페이스 101의 정혜연 대표는 “단색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색’을 먼저 떠올리지만 정작 작가들이 관심을 두는 건 ‘색’이 아니다. 색이 들어가면 구체적 느낌이나 형상이 연상돼 의도적으로 색을 빼버리는 작가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다. ‘색을 초월한 사상과 철학의 회화’라는 것이 더 적합한 설명”이라고 말했다.

서구의 색면 추상화와는 어떻게

다를까? 지난해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단색화의 예술>을 기획한 윤진섭 국제미술평론가협회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단색화를 서구 모노크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미술 사조라 평가할 수 있다. 정신성과 촉각성, 행위성이 특징으로 박서보의 선묘, 정상화의 뜯어내기와 메우기, 정창섭의 한지 겹치기 등에서 이런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밝혔다.

단색화의 출현은 1970년대 군부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던 삼엄한 시대 탓에 예술가가 그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김기린, 정창섭 같은 단색화 1세대 화가를 중심으로 또렷한 주제나 형상, 이야기가 감지되지 않는 그림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단색화



정창섭 'Return One-H', 163x111.5cm, Mixed Media on Paper,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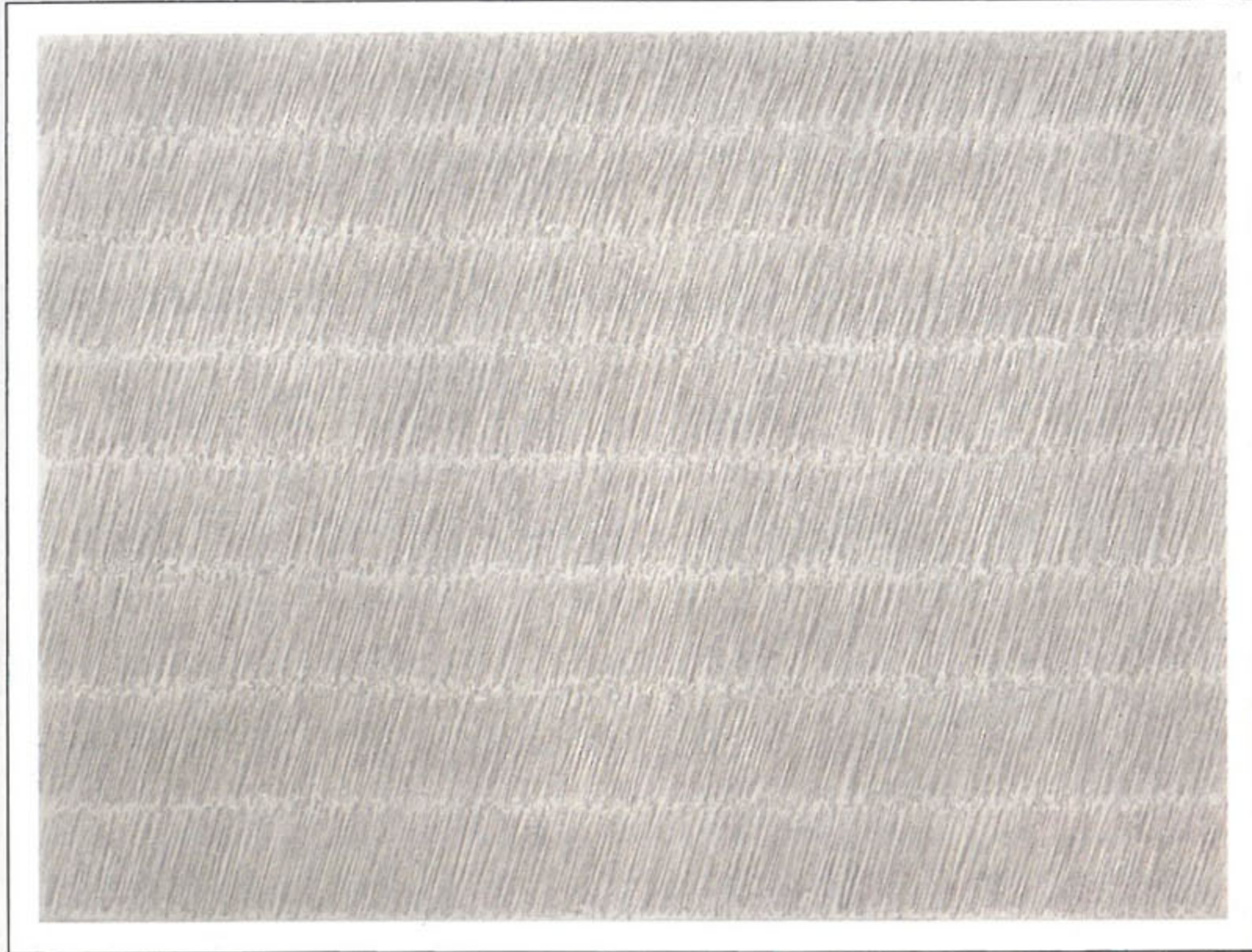
를 ‘저항의 수단’이라 평가하는 이도 많지만 이는 지나친 미화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당대의 민중미술 아티스트들은 그림 뒤에 ‘숨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화가를 비난했다. 단색화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란 얘기가 미술계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다. 분분한 정치적 평가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색화 자체의 고유한 미학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은은한 듯 강렬하고, 고요한 듯 기운이 넘치는 ‘부조리’의 세계.

지난해 국내외에서 열린 각종 경매에서 비싼 금액으로 낙찰되며 관심을 끈 단색화 열풍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다. 1세대 단색화 작가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제갤러리의 전민경 팀장은 “해외에서 체감하는 단색화의 인기는 생각보다 훨씬 높다. 대형 전시도 잇달아 열리고 있다. 올해 120주년을 맞는 베니스 비엔날레(5월 9일

~11월 22)에서 단색화 특별전이 열리며 최근 폐막한 아트바젤 홍콩에서는 세계적 경매 회사인 소더비 홍콩 측에서 단색화 전시를 마련해 선보였다. 단색화를 본 해외 미술 전문가들은 ‘한국에도 이렇듯 오래되고 아름다운 추상회화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구도적 분위기, 반복적 노동으로 완성한 자기 수행적 기운에서 특별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단색화의 계보를 잇고 있는 박기원 작가는 단색화 열풍의 이유를 이렇게 해석했다. “불필요한 것을 다 빼고 핵심만 남긴 것이 단색화다. 일견 밋밋해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담백한 기품이 느껴진다. 화려한 색감이나 구도에 익숙한 서양인에게는 무척 낯설고 생소하게 와 닿을 텐데,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단색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단색화의 거장 6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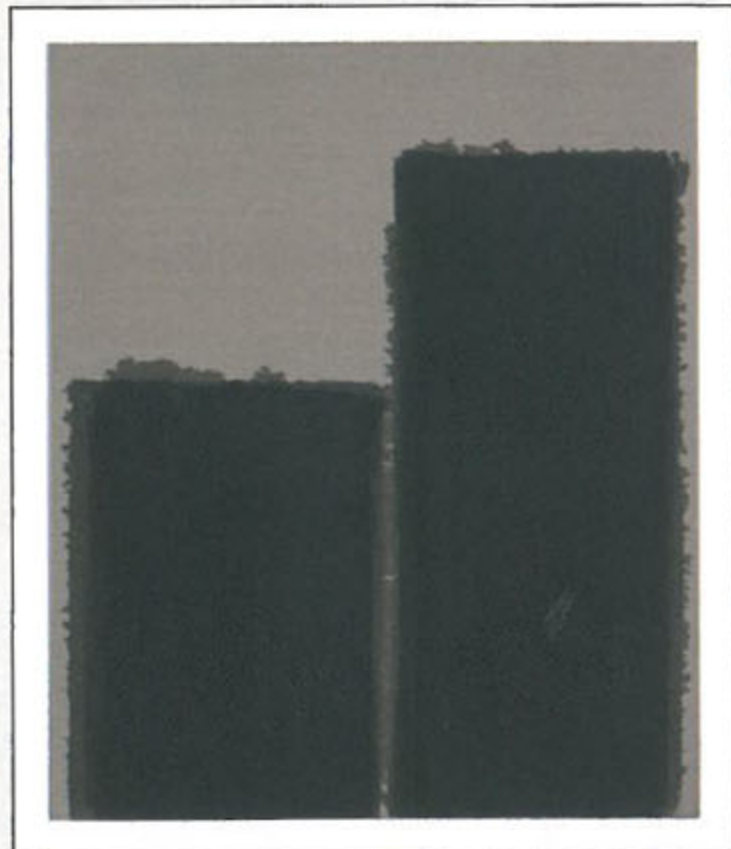
한국 미술계의 독창적 사조로 평가되며 그 미학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는 단색화. 그 시작과 영광의 중심에 있는 작가 6인의 작품 세계를 보면 단색화의 매력과 특징이 더 또렷이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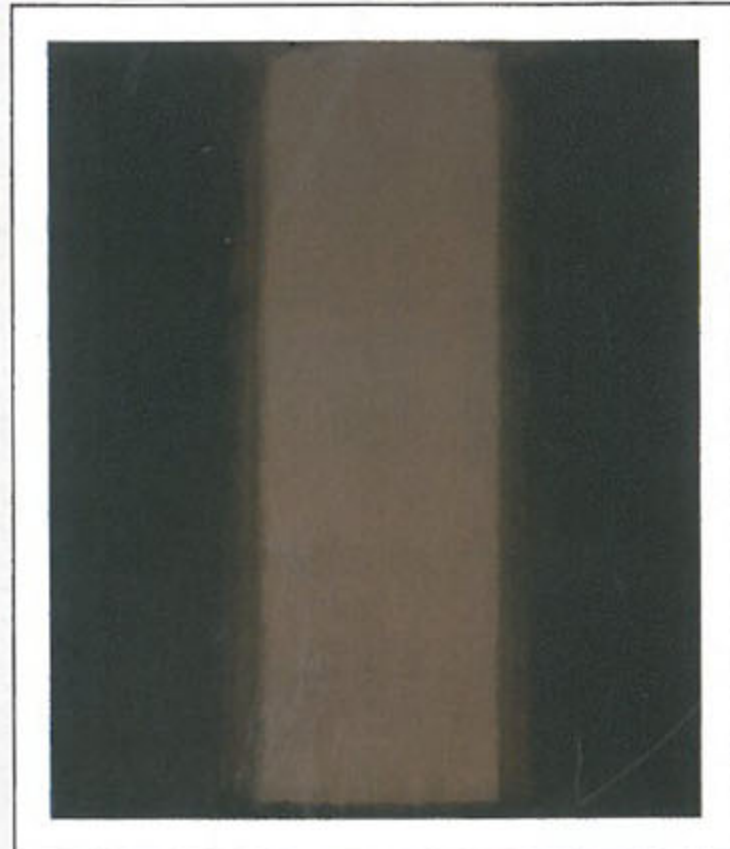
박서보 'Ecriture(描法)No. 17-76', 96×130cm, Pencil and Oil on Canvas, 1976



하종현 'Conjunction 74-25', 210×100cm, Oil on Hemp Cloth, 1974



윤형근 'Burnt Umber and Ultramarine', 100×65cm, Oil on Canvas, 1992



윤형근 'Burnt Umber and Ultramarine', 160×130cm, Oil on Canvas,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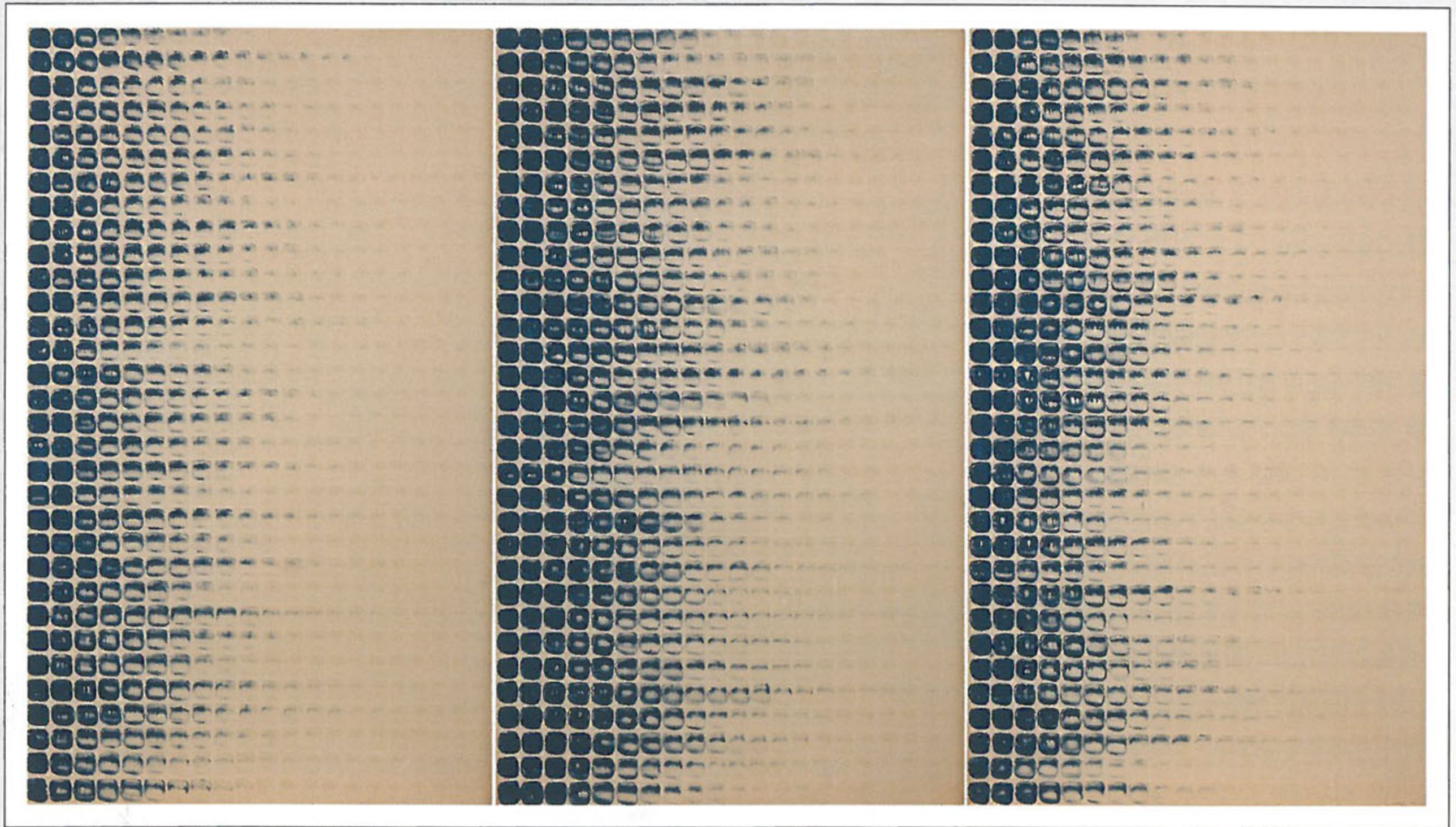


박서보(1931~) 옅은 핑크와 블루로 화면을 분할하는 것 같은 천재적 컬러 감각, 막대나 대자로 물감의 표면을 밀어내 구현하는 조형성 등으로 '모던 단색화'의 기수로 평가받는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느낌이라 국내외에 컬렉터가 많다. 최근 들어 컬러 물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1970~1980년대에는 흰색과 회색 계열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도쿄 현대미술관을 포함, 아시아 전역의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윤형근(1928~2007) 암갈색과 군청색을 섞어 완성한 색을 이용해 독창적 회화 세계를 구축한 작가. 어두운 색감의 바탕색 위에 거침없이 그은 듯한 수평이나 수직의 '획'을 더해 단순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그림을 보여준다. 4월 15일~5월 17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통해 1970~1990년대에 완성한 초기 대작을 만날 수 있다. PKM 갤러리 장라운 큐레이터는 "묵향이 느껴지는 담백한 기운과 웅대한 스케일이 윤형근 작가 작품의 매력으로 작가 최초의 화집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근 작가의 작품은 독일 스트라스부르 현대미술관 등 해외유수의 기관에서 전시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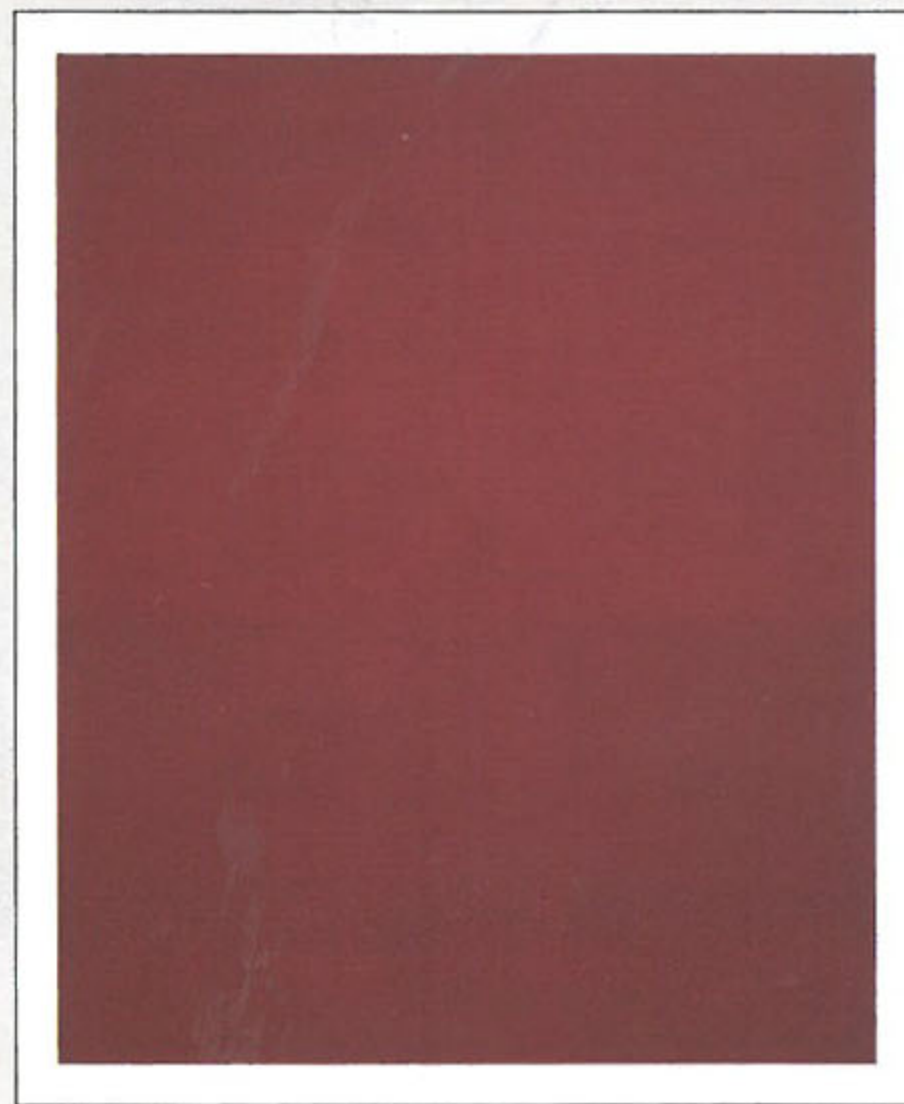
하종현(1935~) 마대 뒷면에 도구를 이용해 물감을 짓이기는 방식으로 추상화를 완성하는 작가. 누르스름한 흙빛, 거친 질감이 한국전쟁 직후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평가다. 중성적이고 차분한 색깔이 한국의 전통적 미감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 "그림이 잘 안 팔려 오늘날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할 만큼 여유와 유머 감각이 넘치는 노장 작가는 1990~199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2001~2006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했다.



이우환 'From Point', 162×291cm, Pigment Suspended in Glue on Canvas, 1977



정상화 'Work 73-1-9', 162×130cm, Acrylic on Canvas, 1973



김기린 'Visible, Invisible Ca', 250×200cm, Acrylic on Canvas, 1988

2세대 단색화 작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는 오늘날의 단색화 열풍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 배경 중 하나가 단색화의 계보를 잇는 작가가 많다는 것. 70~80대인 1세대 작가를 이어 또 다른 느낌의 단색화를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 작가로는 고산금, 김춘수, 김태호, 김택상, 노상균, 남춘모, 문범, 박기원, 안정숙, 이강소, 이인현, 이배, 장승택, 천광엽 등이 꼽힌다.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한국의 단색화>전을 기획하면서 소개한 작가들도 40~50대 작가가 많다. 젊은 작가들의 단색화 그룹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될 전망이다.



이우환(1936~) 화가이자 철학자, 저술가로 세계 미술 시장에서 독보적 위상을 갖고 있다. 2011년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2014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대규모 조각 전시를 선보였다. 돌, 철판 등 자연적, 인공적 '사물'을 작품에 그대로 활용하는 모노하物派 운동의 주역이기도 하다.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등 수많은 연작을 선보였으며 단색화 열풍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습득한 전통 서예 기법과 철학적 사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상화(1932~) 작업은 고령토를 캔버스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벌이 마르면 캔버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 균열을 만든다. 접힌 경계면의 고령토를 떼어내 움푹한 자리를 만들고 그 위를 다시 아크릴물감으로 메우는 행위의 반복. 이렇게 완성한 그림은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묻어나는 독특한 멋과 분위기를 풍긴다. 작가는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와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08년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미디어이션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프랑스 생테티엔 메트로폴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어 화제가 돼기도 했다.



김기린(1936~) 언뜻 빨강이나 파랑, 노란색 같은 원색의 물감으로 캔버스를 가득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화면 가득 정교하게 짚은 패턴이 보인다. 공들여 완성한 무늬를 작가는 여러 번의 얇은 덧칠을 통해 미련 없이 '몰어' 버린다. 물감이 미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를 반복해 덧대는 과정에서 고랑 같은 홈이 파이기도 한다. 그렇게 구현하는 것은 '시간의 흔적'. 그의 그림이 한편의 '시각적 명상 작품'이라 불리는 이유다. 파리 국립장식고등미술학교, 파리 국립미술학교, 디종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